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http://www.jthink.kr

보도시점 : 2019년 8월 6일(화)부터

▪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▪담당자 :사회문화연구부 김동영 연구위원
(063-280-7174, 010-4121-1210)

전북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 조성하자!

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혁신역량을 지역발전과 연계 필요
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출판산업 집적화
균형발전을 위한 호남권 전북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

○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이전한 전북 혁신도시에 호남권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.

○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 역량을 지역 전체로 확산하는 지역발전 전략에 따라 국내 출판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의 출판 역량을 결합하자는 설명이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6일 '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'이라는 이슈브리핑(203호)을 통해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출판산업진흥원과 연계해 호남권 출판 거점으로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.

○ 수도권의 파주 출판산업단지, 경부권의 대구 출판인쇄정보밸리를 잇는 호남권의 전북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및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.

○ 실제 전북은 출판산업 관련 자원이 집적돼 출판산업 클러스터 육성의 적지라 할 수 있다. 전북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입지계수는 0.867로 전국 다섯 번째로 높고 한지와 조선시대 방각본 등 역사적 자산을 갖추고 있으며 한지산업진흥원, 고전번역원, 완판본문화원, 완주 삼례책마을 등 출판 관련 시설이 집적돼 있다.

○ 특히 출판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접 관리와 인프라 활용을 통해 창업, 보육 기능 및 출판사의 산업 역량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.

○ 전북연구원은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를 출판역사박물관, K-Book AR/VR체험관, 출판교육장, 출판창업보육센터, 북테크 비즈니스센터, 공연장, 북카페 등으로 꾸리자고 제안했다.

○ 출판역사박물관은 국내외 출판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고, K-Book AR/VR체험관은 한국 출판 관련 콘텐츠를 가상 체험할 수 있게 하고, 출판교육장은 출판 종사자 및 예비 출판 창업자의 교육에 활용하며, 출판창업보육센터는 출판 산업 관련 종사자의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, 북테크 비즈니스센터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출판 관련 시범 사업을 진행하며, 공연장을 통해 북콘서트와 출판 일자리 매칭을, 북카페는 책읽기 등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설명이다.

○ 또 전북 출판 산업 복합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연구책임자인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"출판 산업이 1인1책, 소규모, 디지털 출판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전북이 선도하고 국내 출판 관련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전북을 K-Book 한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"며 "창작, 생산, 유통, 소비, 문화 향유의 출판문화 라이프 사이클이 이뤄지는 산업공간이자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"고 말했다.